

“법인세 인하” vs “서민 감세”...여야 예산안 협상 평행선

국힘 “야,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 민주 “윤 대통령이 개입 협상 방해” 절충안 모색 일괄 타결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새로운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산협상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들고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받으며 ‘서민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감세안’이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서민 감세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고쳐주는 ‘놀부’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을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송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세금을 안 내는 4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니까 예산 협상을 해야 하지만,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다시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꼬아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협상에 개입해 법인세법 개정안 등 협상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착상태에 이른 여야 협상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골목대장 느낌”이라고 비꼬았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합의할 제3의 방안을 고려 중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전혀 꺾이지 않으니 안 하고,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오는 15일까지 법인세법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류의 사태도 우려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실제로 정부안에서 개혁안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처리는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서 당초 요구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에 대한 증액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 점이다. 실제로 여야는 법인세 인하 등 부수법안 외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거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막판 밀고 당기기 끝에 협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장 입구에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상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15일 전까지 결국 법인세와 예산 모두를 통틀어 한꺼번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가 예산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민주당은 연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김순호 경찰국장 등 증인 신청 명단을 추리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 원내지도부는 국정특위 위원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보이콧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낭용과 건강보험 부담증치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 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회적 이익이 결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 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방침을 적었다.

오는 15일 열리는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회의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유승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尹에 충성 못해 난리”

“왕정도 아닌데 윤핵관들 유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이른바 당내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분,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해서 이 난리냐”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좀 허탈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이라도 나눠 가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며 “왕정도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충신이다, 윤핵관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가 경선 물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을 바꾼다? 죽구 한참하다가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지지가 다른 당 지지자의 ‘역선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유승민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민주당이 제일 싫다, 어려워진다, 이러면 저에 대한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가장 극우적인 사

람, 가장 정파 속칭 가장 ‘꼰보수’ 당 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9대 1이든 10대 0이든 저는 그 물 때문에 제가 출마 결심을 하고 안 하고 하진 않는다”며 “더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유승민은 이번 전당대회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라면 제가 대통령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전대, 경선, 공천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선을 이긴 적이 없었고 대통령이든 정권이든 성공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건 나락으로 빠져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넘어 겨울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 무릎 |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